Market Analyst 김후정
02-3770-3605 / hujung.kim@yuantakorea.com

펀드 선택 요인은 신선함과 세제혜택

1) 국내주식펀드↓, MMF↑

- MMF 설정액은 사상최대치인 130조원에 육박. 안전자산 선호와 단기부동화 현상 심화 때문
- 과거 MMF 설정액이 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금융위기처럼 안전자산 선호가 극도로 심해졌을 때였음
- 위험자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국내주식(ETF제외)펀드의 월간 유입규모는 1조원대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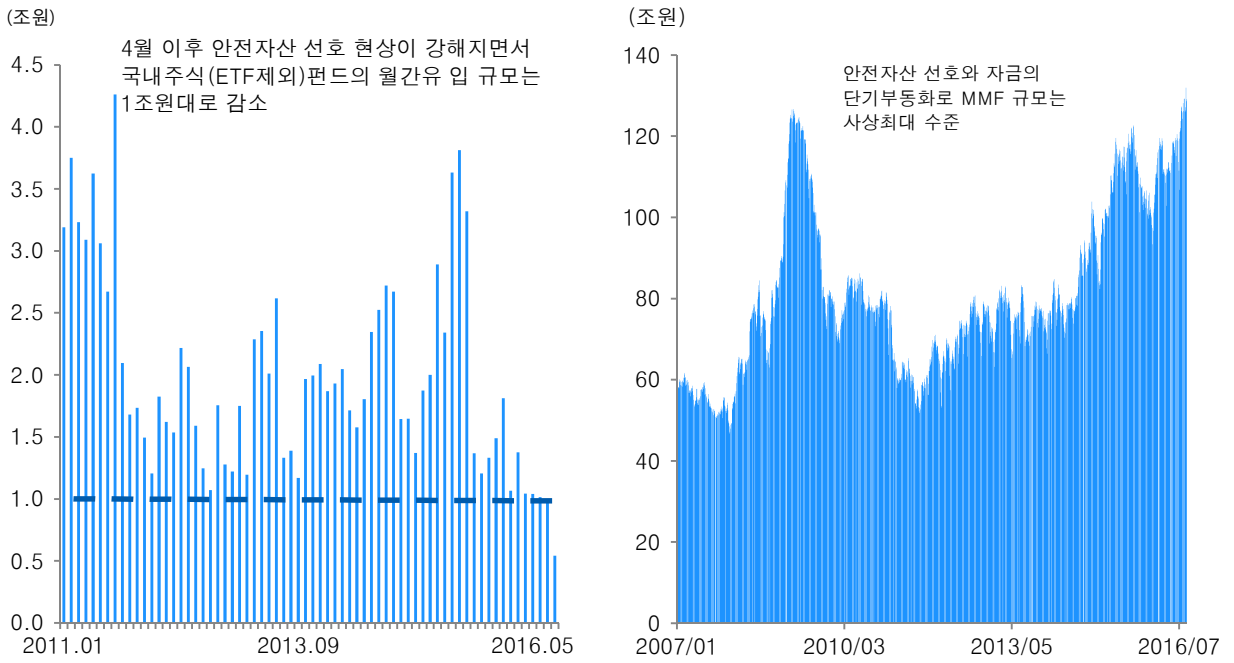
2) 스타일펀드보다는 액티브펀드에서 우선 환매

- 7월 이후의 국내주식(ETF제외)펀드의 순유출 규모는 2조 5067억원
- 4월 이후 액티브주식펀드에서는 2.2조원 순유출
- 4월 이후 펀드 규모를 감안한 환매 비율을 살펴보면, 스타일펀드보다 액티브펀드의 비율이 더 높음. 환매시 스타일펀드보다는 액티브펀드를 우선적으로 환매하는 것으로 보임

3) 최근 1달 자금 유입 상위펀드

- 최근 1달간 자금 유입 상위 펀드의 특징은 중소규모, 3년 이내 출시, 세제혜택
- 투자자들이 대형펀드보다는 20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의 펀드 선호. 최근 3년 이내 출시된 펀드로 자금 유입
-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로의 자금 유입 꾸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한 것으로 판단

1. 국내주식펀드↓, MMF↑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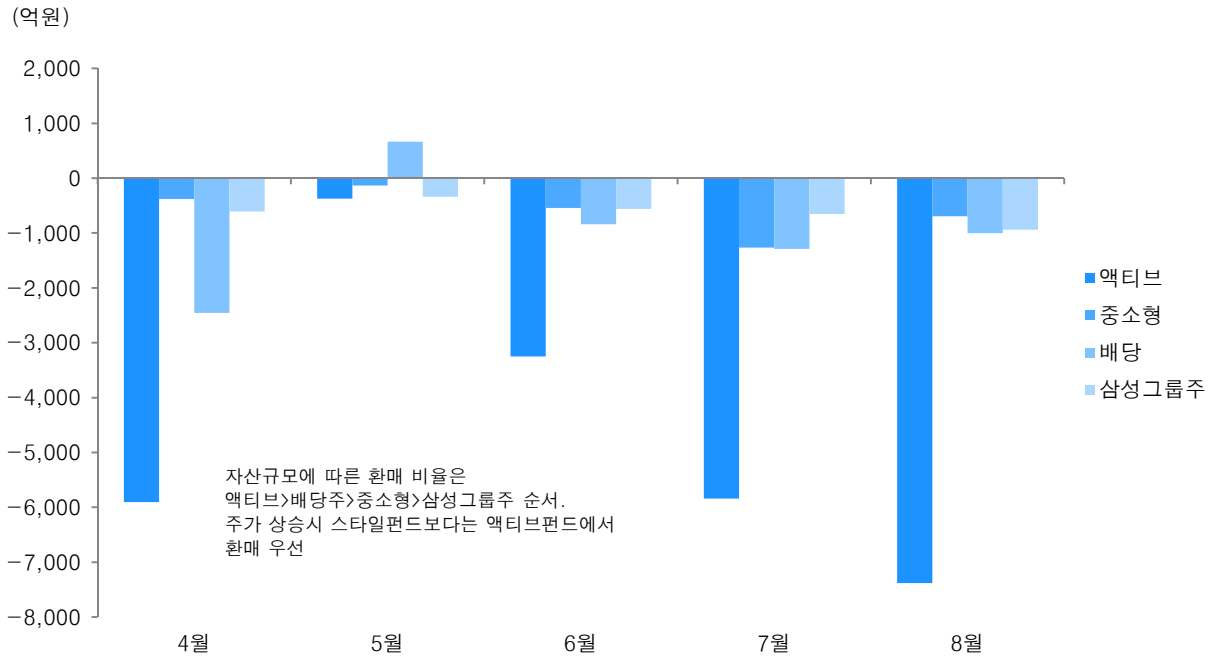
- 4월부터 국내주식(ETF 제외)펀드의 월간 유입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축소
- 안전자산 선호와 단기부동화 심화로 MMF 는 사상최대 규모 수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KOSPI 는 지난달 13일 2000pt 를 넘어선 이후 2050pt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외국인 덕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몇 년째 KOSPI 가 박스권에 갇혀있으면서, 2분기부터 주식형펀드의 월간 유입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월 들어서면서, MMF 설정액은 사상최대치인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MMF 설정액은 60~80조원 규모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도로 강해졌을 때, MMF 설정액이 120조원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독 강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단기금융상품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스타일펀드보다는 액티브펀드에서 우선 환매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 월 19 일 기준, 액티브유형에 삼성그룹주펀드 포함

- ▶ 7월 이후 국내주식(ETF 제외)펀드에서 2.5조원 순유출
- ▶ 펀드 규모를 감안해보면, 배당주펀드 등 스타일펀드보다는 액티브유형에서 환매 비율 높음

주가 상승으로 8월달 들어 국내주식(ETF제외)펀드에서는 1조 3288억원이 순유출되었습니다. 7월에도 1조 1779억원이 빠져나가, 7월 이후의 국내주식(ETF제외)펀드의 순유출 규모는 2조 5067억원입니다. 연초 이후 5조 577억원이 빠져나갔으니, 최근 2달 동안 순유출 강도는 센 편입니다.

4월 이후 주식펀드 유형별로는 23.1조원 규모의 액티브유형에서 2.2조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동 기간 동안 중소형주펀드(3.5조원 규모)와 배당주펀드(5.4조원 규모)에서는 각각 3014억원과 4925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성과가 우수한 삼성그룹주펀드(3.7조원)에서는 3101억원이 순유출되었습니다.

펀드 규모를 감안해보면, 스타일펀드보다는 액티브유형에서 환매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환매시에도 최근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낸 액티브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1 달 자금 유입 상위펀드

펀드명	설정일	운용사	순자산 (억원)	순증감액 (억원)	수익률(%)	
					1달	1년
이스트스프링업종일등1	2004-12-22	이스트스프링	1,247	236	-2.0	-6.7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	2013-08-19	미래에셋	719	50	1.8	14.0
유경PSG액티브밸류	2007-06-14	유경PSG	203	44	-0.3	18.2
삼성우량주장기	2004-12-02	삼성	819	34	0.7	5.8
베어링고배당플러스	2014-06-30	베어링	1,444	32	1.6	13.0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	2014-03-17	한국밸류	1,866	32	1.6	1.7
교보악사Neo가치주	2015-08-24	교보악사	136	28	0.6	7.1
신영마라톤소득공제	2014-03-17	신영	919	21	2.2	10.2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	2016-07-19	미래에셋	42	13	-3.2	
삼성중소형 Focus	2007-09-11	삼성	7,385	11	-3.2	-11.6
키움장기코어밸류	2014-04-08	키움투자	516	9	-0.3	6.0
한국투자변액보험삼성그룹주플러스	2013-09-13	한국	41	8	2.5	8.8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	2014-03-17	KB	422	8	-0.9	-5.3
동부진주찾기고배당	2014-08-08	동부	140	5	0.4	10.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	2007-01-22	미래에셋	748	2	-0.4	3.5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최근 1달간 자금 유입 상위 펀드의 특징은 중소규모, 3년 이내 출시, 세제혜택 등임
- 주식펀드의 자금 유입을 늘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국내주식펀드에서 자금이 빠진다 해도, 모든 펀드에서 순유출이 큰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펀드를 찾아서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1달안 자금 유입 상위펀드를 살펴보면, 규모가 큰 펀드보다는 작은 펀드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펀드는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소형Focus'입니다. 상대적으로 출시된 지 3년 이내의 펀드들이 많습니다. 7월에 출시된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도 자금 유입 상위 펀드에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특징은 소득공제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많은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